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 내달 착수

토목·차량기지·정거장·전기 등 세분화

1단계 17.06km 3개 공구로 나눠 진행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올 초 착공(2조579억원) 확정 이후, 다음 달 건설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설계는 가장 급한 토목과 궤도 분야부터 착수한다. 우선 1단계(17.06km)를 3개 공구로 나눠 진행한다. 1공구는 동천동에서 월드컵경기장, 2공구는 월드컵경기장에서 양림동 휴먼시아, 3공구는 양림동 휴먼시아에서 광주역까지다. 공구별 거리는 5.0~6.5km다.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위해 선(先) 착공 구간인 상무지구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부터 설계에 들어간다. 이 구간은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량이 많아 공사시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난(難) 구간이다.

설계는 토목과 차량기지, 정거장, 전기·신호·통신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한다. 전체 설계비는 260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업비 절감을 위해 도로굴착, 터널 시공 등 모든 공정에서 최신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1구간 설계를 연말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3~4월께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단계 공사비는 1조1천200억원이며 오는 2022년 완공한다. 차량형식은 조만간 조달청에 의뢰해 4월께 확정할 예정이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정으로 이어지는 41.9km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994년 3월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 승인 뒤 2010년 12월 예비 타당성 검토, 2011년 11월과 2013년 12월 두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거쳤다.

이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총 길이 41.9km, 정거장 44곳, 땅을 알게 파는 저심도 지하방식으로 결정됐다. 지상 구간은 4.2km다.

광주시 관계자는 21일 “실시설계는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 해상케이블카 노선 확정

유달산~소요정~마당바위~고하도 3.23km

지역사회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목포 해상케이블카 노선이 유달산 밑에서부터 마당바위와 유달산 정류장을 거쳐 고하도까지 가는 노선으로 확정됐다.

목포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시가 구상한 목포해상케이블카 노선을 의결, 확정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사업은 510억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다음달 예정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하면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오는 6월 착공, 2018년 완공을 계획이다.

확정 노선은 유달산 밑 리라우치원에서 시작해 유달산 이등바위~소요정~일등바위~마당바위~유달산 정류장

을 거쳐 고하도에 이르는 총연장 3.23km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달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시 노선보다 짧은 노선인 소요정~유달산 정류장~고하도, 총연장 2.49km 노선을 시에 권고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시민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시 노선을 선택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우려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해상케이블카 관련 설문조사에는 6400여명이 참여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심장마비·침 흔적 없다... 유족 기다리고 있어”

말레이 당국, 김정남 사인 분석 중... 김한솔 입국설 부인

“절차마다 신중하게 부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의 사인을 분석 중인 말레이시아 보건 당국이 21일 사망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는 증거가 없고 시신에 외상이나 흉터 흔적도 없었다면서 사인은 여전히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누르 하삼 압둘라 말레이 보건부 장관은 김정남 사신이 안치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시신에서는 외상이 없었으며 (뾰족한 것에) 흉터 자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의학 표본은 부검 검사가 분석을 위해 공인된 연구소에 보내진 뒤 수사경찰에 곧바로 전달됐다”며 “이는 사망자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두 가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 당국의 부검에 반대하고 부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북한 측의 반응을 의식한 듯 말레이 당국은 부검이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중인 경찰 당국이 전 부검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격을 갖춘 경험있는 법의학 병리학 전문가와 법의학 방사선 전문의, 법의학 치의학자가 부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신 컴퓨터 단층촬영, 내외부 부검, 법의학 치과검사를 거쳤으며 모든 과정은 국제 기준에 따라 전문적으로 진행됐다”며 “시신은 정중하게 다뤄졌으며, 채취된 법의학 표본들은 관리의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정에 따라 취급됐다”고 말했다.

당초 알려졌던 것과 달리 지난 15일 진



“김정남 신원 확인 중” 누르 하삼 압둘라 말레이시아 보건부 장관(발언대 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김정남 사신이 안치된 쿠알라룸푸르 종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철’로만 확인된 이 인물이 김정남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행된 1차 부검 외에 “2차 부검은 없었다”고 그는 확인했다.

또한 말레이 당국은 ‘김철’로만 확인된 이 인물이 김정남이 맞는지 신원 확인을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누르 장관은 사망자를 ‘김철’로 지칭했으며 아직 DNA 샘플을 제출한 사망자의 친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한국시간 21일 오후) 사망자

의 친족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없는 상태”라며 김정남의 아들 한솔이 입국했다는 소문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는 아직도 친족이 방문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부인했다.

이어 친족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치아 구조와 의료기록, 수술흔적, 반점 등을 살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김정남은 13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여성 용의자가 얼굴에 뿌린 물질을 흡입하고 나서 2시간이 채 되지 전에 사망했다.

말레이 경찰 당국과 보건 당국은 대외적으로 사망자 신원을 ‘김철’로만 공표하고 있으며 ‘김철’로 알려진 인물이 김정남이 맞는지 공식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초당대, 영광에 항공대학 캠퍼스 조성

2021년까지 450억 들여

다운건설 등도 영광에 투자

초당대가 영광군에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한다.

전남도와 영광군은 21일 이낙연 전남지사, 김준성 영광군수, 박종구 초당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당대와 영광군 대마면 50만㎡ 부지에 항공대학 캠퍼스를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초당대는 450억원을 투자해 2021년까지 강의실, 관제탑, 격납고, 활주로(1.3km) 등의 항공교육시설을 갖춘 대학 캠퍼스를 꾸민다.

국내 최고 수준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초당대는 전국에서 4곳뿐인 국토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이다. 항공조종 전문 인력 양성을 ‘콘도르비행교육원’(훈련용 항공기 11대 보유), 항공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목적의 아시아 최초 글로벌 엔진제

작사인 오스트리아 로텍스의 ‘엔진 트레이닝 센터’, 전용 이착륙 활주로 등을 갖추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처음으로 정원 40명 규모의 드론학과를 신설하는 등 항공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주)다운건설, (주)태성엔지니어링, (주)빛가람 IT산업 등도 영광에 투자를 약속했다. (주)다운건설은 영광군 흥농읍 5만8256㎡ 부지에 1100억원을 투자해 2019년 말까지 객실동(200실), 실내 워터파크, 야외 테마파크 등 시설을 갖춘 관광 테마형 리조트를 조성한다. (주)태성엔지니어링은 영광 대마산단 9915㎡ 부지에 80억원을 투자해 2018년 말까지 철물 제작 및 금속 절단 가공공장을, (주)빛가람 IT산업은 대마산단 3306㎡ 부지에 31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전기통신장비, 영상 장비, CCTV, 태양광모듈 등의 생산공장을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 운영

노약자·장애인 등 약자 배려

전남도내 환경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 피해 분쟁 중인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환경 피해 분쟁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1일 “환경분쟁 조정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매달 2차례 이상 환경분쟁 상담사관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환경 피해 상담 및 접수 등을 함께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순회 방문 일정은 시·군 누리집이나 반상회 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한다. 특히 500만 원 이하 소액 환경피해 분쟁은 민원인과

사업자 간 현장에서 알선·조정되도록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120건의 환경 피해 분쟁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10건이 완료되고 10건이 진행 중이다. 완료된 110건 가운데 조정 합의나 재정이 각각 25건, 57건 등이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송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모두 19건이다. 2000년대까지 10건 미만이었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15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환경 피해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옥 균열 및 가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사랑과 감사의 63년 1954~2017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신 학 과	○
		국제 한국어 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술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8(토) ~ 21(화)
- 전형일 : 2017. 2. 22(수) 오후 2시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막지사로 36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 대학원 0621 605-1115

대학원 신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 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 22(수) 오전 10시~18시
		신학과(Th.M.)	○	
일반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22(수) 오전 10시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 (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2. 13(월) ~ 20(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22(수) 오전 10시